

재해 대비 종합대책 '가동'

익산시, 5개월간 24시간 비상대응체제 돌입... 19개 분야 대책반 구성

익산시가 올 여름 재해·안전사고로부터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해 단계별 비상근무에 필요한 농업·축산·도로 등 19개 분야 총 8개 반 191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분야별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3개 시·군·민·관·군, 전국건설기

계협회 익산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위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시설물 점검에 나선다. 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와 침수 우려 지역 관로 상태(퇴적토 적체, 파손)를 상시 점검해 침수·침하 사전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급경사지 15곳, 세월고 2곳, 배수펌프장 12곳, 산사태 취약지역 31곳, 소화전 정비사업 2곳, 우수저류 시설 3곳,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곳, 50여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 9곳 등 모두 77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침수우려

지역 17곳의 우·오수관로에 대해 CCTV를 확인하고 100km의 기계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분야별 자체계획 수립 후 사전점검을 실시해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과 공사 중인 사업장 수방 대책 준비를 완료했다.

환경 분야의 비상급수 대책, 쓰레기 처리대책, 매립장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산사태 분야의 경우 취약지역 점검 관리와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했으며 사방사업은 강바가 시작되기 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산학협력단)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에서 '해상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전주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생산품질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상풍력터빈 블레이드 생산관리 기술 개발

군산대,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선정

군산대학교 이상일 교수(산학협력단)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에서 "해상풍력터빈 블레이드의 전주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생산품질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과제에 선정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94억 3천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4년 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탄소중립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선정된 11개 과제에 총 1954억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상일 교수가 참여해 선정된 과제

의 최종목표는 해상풍력터빈 블레이드 생산품질관리 기술개발과 운용유지관리 기술개발이고, 주관기관 휴먼컴퓨터와 참여기관 군산대학교(총괄책임자 이상일교수)의 4개 기관이 공동 참여한다.

사업의 총 수행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이다. 군산대학교에서는 총사업비 94억3,000만원 중 2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다.

이 사업 수행으로 블레이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공장 증설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약 600명 규모의 인력 채용 및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군산=남영봉 기자

군산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차 계약 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건축물

군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와 임대인, 임차인과 대등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금액이 그 신고대

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 비대면 신고시스템(<https://rtrms.md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전입,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등이 동시에 일괄 처리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를 대부분 일과 중 방문해 일부 수수료를 내고 부여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수수

료 절감과 임차인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를 고려해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적용기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장, 국가 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정현을 시장이 연일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찾아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푸드파크 조성,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동물질병치료제 시제품 생산지

원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반영을 당부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12일에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의 면담에서 동서로 단절된 ▲백제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개선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통물류를 위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착공, ▲오산 신지~영만 국도개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중무2담당, 국토교통부 도로건설 과장, 산업입지정책과장 등 실무부서 담당자들을 만나 익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미래비전, '2030 정책기획단' 본격 가동

농업·농촌, 관광 도시 인프라 등 5개 분야 중심으로 신규정책 발굴 - 익산 지역의 미래비전 설계를 위해 구성된 2030 정책기획단 이 발대식을 열고 신규 정책 발굴에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책기획단 25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2030 정책기획단 kick-off'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분과별 소개를 시작으로 정책기획단 단원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정책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며 신규정책 발굴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제5기 정책기획단은 농업·농촌, 관광, 도시 인프라,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신규정책을 연구하고 실현해 나갈 예정

이다.

시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분과 모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오는 11월 발표회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정책기획단은 2030 세대 신규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4050 세대 멘토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을 결합해 진행된다. 지난 4년 동안 총 50여건이 넘는 신규정책을 제시하며 시장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다.

정현을 시장은 "공무원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도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해줘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체감형 정책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지역 소식통

시간여행마을 자율방역 코로나19 안심 관광 준비

군산의 대표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 게스트하우스 25개 업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자율방역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관광사업체 점검을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인 권빌리지 협동조합과 함께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협동조합은 시 점검반과 함께 시간여행마을 게스트하우스 방역 수칙 점검에 함께 참여해 운영자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부탁하며 함께 자율방역 캠페인을 실시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30년 역사 이어온 '군산 전통명가' 발굴

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산의 역사와 지역 이야기를 간직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군산 전통명가를 발굴해 육성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묵묵히 시민의 삶과 더불어 동행해 온 오래된 가게를 발굴해 더 오래 이어 갈 수 있도록 추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에도 30년 이상 지속적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가업승계를 대상으로 6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는 군산 전통명가 인증제도와 인증서 뿐만 아니라 홍보마케팅과 1:1 컨설팅, 업체당 7백만원의 경영환경개선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어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군산 전통명가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업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과 ☎454-2674 /군산=한영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